

“올해는 어린이 포교의 해”

(사)동원 창립 20주년 선언...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동원(이사장 지현)이 '2006년을 어린이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조직 개편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월 25일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단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동원이 제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 분화로 인한 역할 분담이다. 동원 산하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어),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 동원동화구연회(회장 덕진)를 두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했다.

**지현·정어·심산·덕진 스님 등
경험있는 스님들 역량 결집
업무 세분화·전문화 시도
20년사 발간 계획도 세워**

이는 부산, 경남에서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스님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함으로써, 전국의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장 정어 스님은 대불어 회장과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장 등을 지냈고, 불교교육연구소의 심산 스님 역시

어린이 범회 자모회 등을 구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어린이 범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덕진 스님 역시 대불어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어린이 포교의 현장 경험과 포교 의지는 이미 검증받은 스님들이라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님들의 역량 결집 외에도 조직개편이 가져올 효과는 또 있다. 그동안 대불어가 맡아오던 업무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집중력과 지속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불어는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전반 업무를 맡아 총괄하고, 대한불교교사대학은 교사 양성에 주력하며, 불교교육연구소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및 어린이 범회 지침서 발간 등 교리 및 교재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창립 20주년인 사단법인 동원은 10월 15일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한편, 20년사 발간 계획도 갖고 있다. 어린이들과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힘써온 지도자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20주년 기념행사로 성년을 축하하게 되는 것이다.

전래놀이한마당, 연꽃문화제, 지도자연수회 등 기존 사업 외에도 올해는 애니메이션 제작, 범회지침서 제작, 불교동화구연대회, 주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예년보다 2배로 확대했고, 어린이 포교지인 '연꽃'을 웹진화하고 애니메이션과 찬불가 CD를 보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들은 이미 시작됐다.

사단법인 동원 이사장 지현 스님은 "아이들의 심성을 일깨우는 것은 불교의 미래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라며 "어린이 포교의 후원자로서 포교의 씨앗을 함께 심고 가꾸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안성이

부산불교보현회 회장

행(行)과 지혜(智慧)를 구비하는 것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고 자리아타(自利利他)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했다. 한바퀴만으로 수레는 굴러갈 수 없고, 날개가 한쪽뿐인 새는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서른한 살 때, 세 살 난 아들을 여섯 살과 여덟 살짜리 두 딸에게 맡겨 놓고 천마재활원 목욕봉사를 나섰던 안성이(55·자비행) 부산불교보현회 회장. 안 회장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행복은 완성된 행복이 아닌 배려를 느끼며 살아왔다.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새처럼 안 회장은 늘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두고는 행복할 수 없었기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

어명이나 되는 회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나올까?

안 회장은 망설임 없이 '수행과 기도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안 회장은 물론 부산불교보현회 회원의 수행과 기도는 봉사의 기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삼천배, 참선 등의 정진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도 수행이 없이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철저한 수행과 봉사의 두 바퀴를 조화롭게 굴리고 있는 부산불교보현회는 군부대, 교도소, 장애인, 청년 포교 등 어려운 이가 있는 곳이면 수 없었기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

혼자서만 행복할 순 없다... 30년간 봉사 전념

가족 형제 든든한 후원자, 수행기도 일상화

는 동안 '봉사에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봉사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25년이 넘도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엄마'이자 독거노인들의 '딸'로 살아온 안 회장이지만 처음엔 가족의 반대도 극심했다.

그러나 38세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나 원없이 하고 죽자며 더욱 봉사에 매달리자 가족들도 따라나섰다. 그 길로 남편 김일호(58) 거사도 부산불교보현회의 '대장'으로 불릴 만큼 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늘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임무를 보며 자란 큰 딸 미희는 복지도 전공하고 작은 딸 경희, 아들 기범이 도 임마가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해 일을 거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불교보현회에는 안 회장의 형제자매 8명이 모두 돌도 없는 후원자와 봉사자다. 자식들의 밥까지 나눠 거저에게 주고, 환갑을 양모원, 고아원에서 잔치로 대신할 만큼 보시행에 철저했던 어머니가 유대연과 보살의 영향이다. 나이가 들수록 안 회장은 어머니를 닮았다. 애기를 자주 듣는 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가족은 물론 300

청년회를 중심으로 성우원, 평화재활원에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 재능을 도고하고 장애인체육대회를 11회째 열고 있다.

또한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화 상담도 해주고 밀반찬도 챙겨주는 일도 빼놓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108배 참회와 다라니 108독을 마치고 길을 나서 온종일 봉사활동을 하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은 이제 바깥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보살핌으로 자란 아이들이 다시 부산불교보현회의 회원이 돼 후원금도 내고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안 회장의 보살핌은 더 넓은 원을 그리며 세상으로 번지고 있다.

"다른 욕심 다 버려도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 힘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나눔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018-579-4531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마주 앉으니 이웃의情 '새록 새록'

부산 범어사 '사하촌 주민 위한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108배 등 진행, '대화의 장' 정례화



중이나 생각들을 털어 내놓기 시작했다.

"을 9월에 범어사 소유 토지에서 영입하는 집을 철거한다는 게 사실이야?" "세계선문화타운이 조성되면 상하마부락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직접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그동안 이런 저런 소문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간다면 두루 두루 윈윈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소임자 스님들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때론 종무소의 소임자들까지 보충설명을 해주자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려나갔다.

범어사는 앞으로 이 같은 대화의 장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민들도 범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대화를 마친 최환근 청룡노포 주민자치위원장 위원장은 "오늘 대화를 통해 범어사가 잘 되는 것이 곧 사하촌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화로 마음을 풀었던 사하촌 주민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법문, 원효암 순례, 불무도, 108염주 만들기 등 전통문화의 맛을 체험하는 등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 일정을 마쳤다.

천미희 기자

'주5일 수업제' 부산 종교계 관심

부산시교육청 관련 세미나에 프로그램 발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 주최로 2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5일 수업제 관련 세미나에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유관기관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운영사례 발표회가 열린 롯데호텔 대공연장에는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참석해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불어의 정일훈 팀장은 "15개 사찰에서 다도, 무지침, 숲속체험, 명상과

어린이 선체조, 매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포교원 차원에서 체험 학습 지침서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참선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우곡선원 심성개발원의 김혜경 교장은 "참선을 통해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고3수험생,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린)는 2월 28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62기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석암장학회 회장 정린 스님, 대한불교석암장학회 차원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은 조하루 법회와 겸해 열려 1000명의 사부대중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함께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정린 스님은 "장학사업 또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므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에게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감로사, 3천배 참회기도법회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55회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으로 전국에서 기도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감로사 3천배 기도회는 전국 유명 범사 스님들의 법문으로 그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올해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인환·정관·대성·각성·법회·홍교·지안·성우 스님 등 원로·중진스님들이 법석에 올라 참회의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 바른 정진을 일깨우게 된다. (051)809-0926 천미희 기자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니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靈木(영목)이란 神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진흙 속에 묻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계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진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뱃속을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수염으로서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수집센터'에서는 '고궁박물관',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잠신을 좇고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여 부적(符籙)처럼 소중하다고 한다.

불기(佛紀)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및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팔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행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佛事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해드리며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